박성현, 신인 첫 세계랭킹 1위 올랐다

랭킹포인트 2위 유소연과 0.03점차… 올 시즌 메이저 우승 포함 2승 · 준우승 2회 등 화려한 성적 거둬

박성현(24 · 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첫해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7일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박성현은 랭킹포인트 8.41점으로 8.38점의 유소연(27 · 메디힐)을 0.03점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지난주 2위였던 박성현은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

올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10위로 출발한 박성현은 메이저 우승 포함 2승과 함께 준우승 2회 등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냈다.

박성현은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L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 대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출격했다.

이 대회에서 공동 19위 머물며 지난주 평균 랭킹 포인트 8.50점에서 0.09점 하락했다.

그러나 재팬 클래식에 출전한 유소연이 공동 33위에 그치며 지난주 8.65점에서 0.27점이나 뒷걸음쳤다.

유소연은 이 대회에서 6위 이내 들어야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위 수성에 실패한 유소연은 20주 만에 1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2006년 여자골프 세계랭킹 제도가 도입된 이래 LPGA 투어 신인 선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박성현이 처음이다.

신지애(29 · 스리본드)와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각각 데뷔 시즌 이듬해인 2011년과 2015년에 1위를 했다.

세계랭킹 포인트는 2년간 성적을 토대로 책정된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박성현

최근 13주 성적에 가중치를 둔다. 박성현은 최근 13주 동안 우승 1회, 준우승 1회, 공동 5위 등 톱5에 3번 들었다.

이로써 박성현은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미야자토 아이(일본), 크리스티 커(미국), 신지애(29 · 스리본드), 청야니(대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박인비(29 · KB금융그룹), 리디아 고, 이리야 쭈타누간(태국), 유소연에 이어 역대 12번째 골프여제가 됐다.

한국선수로는 신지애, 박인비, 유소연에 이어 4번째다.

유소연이 2위로 내려앉은 가운데 재팬 클래식 2연패에 성공한 펑산산(중국)이 렉시 톰슨(미국)을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가 5위로 올라서며 전인지(23)는 6위로 밀렸다.

김인경(29 · 한화),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리야 쭈타누깐(태국), 크리스티 커(미국)가 7~10위를 유지했다.

지난주 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한 최혜진(18 · 롯데)은 한 계단 오른 15위가 됐다.

/뉴시스

여자컬링, 아 · 태 선수권 9연승… 예선 1위 확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컬링 대표팀(경북체육회)이 2017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PACC)에서 9연승을 질주했다.

스킵 김은정과 서드 김경애, 세컨드 김선영, 리드 김영미, 후보 김초희로 이뤄진 한국 여자 대표팀은 7일 호주 에리나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11-6으로 이겼다.

9전 전승을 거둔 한국 여자 대표팀은 남은 예선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예선 1위를 확정했다.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홍콩, 호주 등 6개국이 참가한 대회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 상위 4개팀이 토너먼트로 준결승과 결승을 치른다.

대표팀은 8일 오전 홍콩과 마지막 예선, 오후에 준결승을 벌인다.

준결승에서 승리하면 9일 오전 결승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은 여자부 2연패를 노리고 있다.

한국 외에 중국(7승 2패)과 일본(4승 4패)이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컬링 대표팀(경북체육회)은 7경기에서 4승 3패를 기록해 뉴질랜드와 공동 4위에 올라있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

/뉴시스

KBO, 손아섭 · 민병헌 등 FA 신청 18명 선수 명단 공시

오늘부터 모든 구단 계약 가능

KBO(총재 구본능)는 7일 2018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의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KIA 김주찬, 두산 김승회 · 민병헌, 롯데 강민호 · 문규현 · 최준석 · 손아섭 · 이우민, NC 손시헌 · 지석훈 · 이종욱, SK 정의윤, 넥센 채태인, 한화 박정진 · 안영명 · 정근우, 삼성 권오준, kt 이대형 등 총 18명이다.

이날 공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는 총 18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호준(NC), 이용규(한화)는 FA를 신청하지 않았다.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사진 왼쪽) · NC 다이노스 민병헌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 공개

한류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 미국 힙합계 핫한 래퍼 디자이너(Designer)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곡을 깜짝 공개한다.

7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7일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의 수록곡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버전을 세계에 동시 공개한다.

'마이크 드롭'은 방탄소년단만의 스웨그를 담은 힙합곡으로, 지난 9월 공개 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곡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곡은 DJ 스티브 아오키가 리믹스하고, 디자이너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빅히트는 "'러브 유어셀프 승 '허"가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덕분에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면서 "이런 팬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리믹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